

절제에 관한 재검토* – 새로운 인간의 가치에 대한 탐구 –

료수케 B. 이나가키 (일본 큐슈대)

1. 이 논고의 주제는 인간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관한 대안(代案)의 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며, 내가 생산적 토론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 이제 내가 하려는 작업은 전통적 덕론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한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며, 그 관점은 내가 최근의 사고와 연구에서 취해 왔던 것 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는 절제(temperantia ; sophrosyne)의 덕에 관한 고전적 개념을 제기할 것이며, 그것을 우리 사회의 기본적이고 급박한 요구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우리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한 탐구를 위한 어떤 지침이나 이정표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보겠다.

2. 무엇보다 먼저 명백한 것은, 플라톤에 의해 세워지고 스토아 철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규범에 따른 주요 덕목 중 하나인 절제가 오늘날 우리의 도덕 의식에서 거의 아무런 기본적인 역할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거의 언제나 절제를 취하지 않았음과

* 이 논문은 1990년 8월 29일에서 31일까지 개최된 서울대학교 부설 철학사상연구소 설립 기념 국제철학 학술대회 “새로운 문명에 대한 철학적 조명”에서 발표된 영어 원문을 우리말로 옮긴 것임.

연결시킨다. 우리는 취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절제있는 사람’을 ‘덕’으로서의 절제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다. 적어도 ‘덕 있는’ 이란 말을 쓴다고 가정하는 한(사실 지금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지만) 그렇다. 취하지 않았음은 상식과 의무의 문제이며, 운전의 경우에 그러하듯이 때때로 법에 의해 규정되기까지 한다. 그것은 명예나 칭송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실제로 육체적 욕망이나 쾌락을 조절한다는 의미의 절제를 칭송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반론에 대해 그 경우의 절제나 조절은 건강이나 힘을 위한 수단으로 칭송되는 것 이지 도덕적 탁월성으로서 칭송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겠다. 혹은 절제는 일종의 신중함으로 칭송되는 것이지 정확히 절제이기 때문에 칭송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될지 모르겠다. 우리는 아마 절제는 우리의 도덕 의식에서 도덕적 탁월함이나 덕이 되기를 그쳤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런 식으로 제기될 것이다: 어떻게 절제가 주요 덕목 중 하나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이 도대체 하나의 윤리적 덕 조차 아니게 되었는가?

헬렌 노스(Helen North)는 『사상사 사전(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¹⁾에 “절제와 주덕(柱德)의 규범 (Temperance(Sophrosyne) and the Canon of the Cardinal Virtues)”이라는 제목으로 실은 논문에서 절제의 덕의 역사를 그 고전 시대의 출생에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서술하고 있다. 그녀는 절제의 덕의 출생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절제는 호머에 의해 이상화된 시대의 영웅의 탁월성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 영웅들의 일차적 자질은 전투에서의 용기와 싸움 기술이었다. 그러나 기원전 7세기와 6세기에 접어들면서 희랍 세계의 사정 변화는 폴리스(도시 국가)의 탄생으로 귀결되었으며, 폴리스와 함께 그것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새 가치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펀리(M. I. Finley Jr.)의 말을 유용하자면,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웅들을 길들이는 것은 필연적이었으며, 영웅을 길들이고 그를 한 시민으로 만드는 힘들 중 하나는 바로 절제였다.”

1) Charles Scribner's Sons, 1968.

그렇다면 절제의 덕은 애초부터 시민적 덕이었으며, 그 본질적 구성 요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앎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제였다. 노스에 따르면, 플라톤에서 우리는 보다 플라톤적인, 영혼과 폴리스에서의 질서와 조화라는 의미에서의 절제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술 및 성적 향락에 대한 합리적 조절이라는 대중적 의미에서의 절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플라톤의 이러한 확장적인 경향에 반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육체적 쾌락과 관련한 중용이라고 보다 정확히 정의하는 바 식사와 음주 및 성적 접촉이 그것이다. 노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함에 소홀함이 없는데, 즉 절제의 덕을 탄생시켰던 전통적 중용에 대한 희랍의 정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으로서의 덕에 대한 이론에서 제대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이다.

노스에 따르면 전통적 절제론에 관해 흥미있는 추가는 중세에 수도 생활과 연결되어 나타났다고 한다. 거기서 절제의 덕은 순결의 덕과 동일시되었는데, 순결의 덕은 크리스챤의 영적 삶의 완성에 이르는 기본적인 길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노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나는 주덕의 후기 역사에서 절제의 덕이 다른 덕들을 점점 압도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에서는 윤리적 덕 그 자체와 동일시 하였다는 점을 부가하고 싶다. 덕스러운 사람은 절제있는 사람 즉 순결한 사람이었다. 작금의 윤리적 덕의 몰락과 퇴색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빅토리아 시대의 윤리적 덕과 절제-순결의 동일시에 대한 반발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3. 절제에 관한 고전적 이론들을 우리 사회와의 연결 속에서 재검토하는 우리의 시도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일반적 덕으로서의 절제를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플라톤이 절제의 덕을 모든 덕의 공통적 징표인 영혼에서의 질서와 조화로 보았다는 점에서 일반적 덕으로서의 절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자신의 절제론에 관한 논구에서 “절제란 말은 이성이 인간적인 일

과 감정에 부여하는 어떤 특정한 삼가함이나 규율을 의미하며, 이것은 모든 덕에 공통이다.”²⁾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따라서 절제의 덕은 말을 포함한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 설정되는 질서와 규율이라는 의미에서 일반적 덕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모든 덕의 공통적 특징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와 감정에서 이성에 의해 달성되는 질서와 규율은 고전적 덕론에서 ‘정직(honestas)’이란 말로 표현되었던 일종의 정신적 아름다움이며, 그 말 역시 다른 많은 말들처럼 그 원 뜻과 심오한 의미가 오늘날의 도덕 어휘에서 거의 완전히 소멸된 말이다. 정직과 정신적 아름다움(decorum sprituale: pulchrido spiritualis) 사이의 연관은 아퀴나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디오니소스의 말에서 모아보면 알 수 있듯이(「신성한 이름들에 관하여」IV) 아름다움이나 산뜻함은 명석성과 적절한 비례의 동시 발생에서 결과한다. 왜냐하면 그는 신이 우주의 조화와 명석성의 원인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해진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의 아름다움은 어떤 정도의 색깔의 명석성과 함께 잘 조화된 사지를 가진 인간에서 성립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신적 아름다움도 이성의 정신적 명석성의 관점에서 잘 조화된 행동이나 행위에서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덕과 같다고 언급하였던 *honesty*의 의미이다: 그리고 인간과 관련있는 모든 것을 이성에 따라 조절하는 것은 바로 덕이다. 따라서 *honesty*는 정신적 아름다움과 동일하다.”³⁾

우리는 인간의 행위와 감정에서 이성에 의해 도달된 질서와 조절이 바로 어떤 종류의 명석성과 광채를 가진 옳은 비례 혹은 조화이므로⁴⁾ 일반적 덕으로서의 절제는 일종의 정신적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못지 않게 분명한 것은 특수한 덕으로서의 절제가 특수한 의미에서의 특수한 정신적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수한

2) *Summa Theologiae*, II-II, 141. 4.

3) 같은 책, 145, 2.

4) 아퀴나스에 의해 주어진 아름다움에 관한 기술.

덕으로서 절제는 우리가 식사나 음주 및 성적 접촉에서 경험하는 욕망과 쾌락에 대한 합리적 통제와 조절에 관련되어 있다.⁵⁾ 이러한 욕망과 쾌락들은 그것들이 인간에게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가장 격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것들이다.⁶⁾ 그리고 이렇게 격렬한 욕망과 쾌락에 대한 합리적 통제나 조절은 ‘특별히’ – 절제는 원래 그것과 관련된 이름이므로⁷⁾ 또 어떤 탁월성⁸⁾ 때문에 – 절제의 덕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절제가 통제하는 욕망들이 인간과 짐승에 공통되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들은 저급성 혹은 어떤 추함(turpido)을 갖는다.⁹⁾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성에 의해서 적절히 통제되기만 하면 어떤 특수한 정신적 아름다움이 그 것에 대해 이야기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특수한 덕으로서의 절제는 그것이 인간의 추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한에서 특수한 아름다움을 야기한다.

나는 절제의 덕을 오늘날에 특별히 의미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절제의 덕과 정신적 아름다움과의 밀접한 연관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미 오늘날에 절제가 일반적으로 도덕적 가치나 탁월함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게 그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혹은 차라리 그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것의 부재 내지 결여이다. 우리가 정신적 아름다움 – 그것은 정직이라고 불렸던 도덕적 감각과 동등하다 – 에 대해 잘 발달된 감각이나 그것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할 때, 도덕적 가치의 좋음은 우리를 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끌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신적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도덕적 가치는 우리 안에 뿌리내리기 시작할 수 있다. 도덕적 가치를 흡인력있고 추구할

5) *Summa Theologiae*, II-II, 141, 4.

6) 같은 책, 141, 7, ad 3.

7) 같은 책, 141, 2.

8) 같은 책, 141, 2, ad 2.

9) 같은 책, 142, 4.

만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지각되고 사랑받을 때의 정신적 아름다움이다. 아퀴나스의 통찰을 보자 : “만약 어떤 사물이 인지되자마자 아름다운 것으로 지각된다면, 그것은 어떤 적절하고 좋은 것으로 취해진 것이다. …따라서 honest 자체는(그것은 도덕적 가치 일반이다) 그것이 정신적 아름다움을 함축하는 바로 그 만큼 추구의 대상이다.”¹⁰⁾ 이어서 그는 키케로의 「의무에 관하여」라는 책으로부터 다음을 인용하고 있다 : “당신은 말하자면 정직의 형상 자체와 그 모습을 보는 것이다. ; 그리고 그것이 만약 눈으로 보였다면 플라톤이 말했던 것처럼 지혜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formam ipsam et tanquam faciem honesti vides ; quae si oculis cerneretur, mirabilies amores, ut ait Plato, excitaret sapientiae.)”

우리 사회는 육체적 아름다움이 항유를 위한 기회가 풍부한 사회이다. 그런데 정신적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나 그것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는 기회는 어떠한가? 이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해야만 하겠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말해야만 하겠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과 정력이 예술적 미와 미학적 감각의 함양을 위해 투여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 아름다움을 위한 기회와 관련해서 전혀 낙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이곳은 정확하게 절제의 덕에 대한 재검토가 우리 사회에 대해 특별한 적실성을 갖는 곳이다.

도덕적 가치로서의 절제의 몰락들 중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정신적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의 몰락이라는 점을 나는 지적했었다. 나의 제안은 일종의 정신적 아름다움으로서의 절제의 덕을 재발견하고 다시 회복함으로써 전상황을 역전시키자는 것이다. 나는 절제의 덕의 아름다움 – 그 찬란함 · 조화 · 총체성 – 의 회복으로 가는 길을 상세하게 토론할 수는 없다.¹¹⁾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만일 우리가

10) 같은 책, 145, 2, ad 1.

11) 아퀴나스는 덕의 모든 명석성과 아름다움(tota claritas et pulchrido)이 이성의

절제의 덕을 습득할 요량이면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무절제의 악 즉 제어되지 않은 막무가내는 어린애같은 어떤 것을 갖는데(아퀴나스는 그것을 “어린애같은 잘못”이라고 불렀다),¹²⁾ 그것은 어린애가 강제됨에 의해 교정될 수 있듯이 훈련을 통해서만 고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정신적 아름다움이 육체의 그것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사회를 선택할 작정이면, 정신적 아름다움의 원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그것의 구현체로서 절제의 덕의 재발견과 재회복이 필연적인 첫 발자국이 될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4. 전통적 덕 이론에서 해석된 절제의 덕이 오늘날에 대해 갖는 고도의 적실성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해석에 따르면, 주덕의 하나로서의 절제의 덕은 앞서 지적되었듯이 식사나 음주 및 성적 접촉에서의 욕망과 쾌락의 합리적 조절과 통제와 관련된 것이며, 이것들은 모두 촉각의 사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욕망과 쾌락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들이라고 이야기되는데, 그것은 그것들이 개인으로서나 종으로서나 삶의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행동이나 조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¹³⁾

여기서 ‘필요’나 ‘필연성’이 ‘욕망’과 ‘쾌락’에 대해 갖는 선차성에 주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인간의 삶을 보존하는데 필수적인 행위나 조작이 우선이며, 그러한 조작들이 뒤따르는 쾌락은 이차적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친다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 촉각의 욕망과 쾌락이 조절될 적도와 규칙을 잃게 될 것이다. 아퀴나스는 이 점을 대단히 분명히해서 절제를 위한 적도와 규칙(*regula temperantiae*)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것(*necessitas praesentis vitae*)

빛(lumen rationis)으로부터 온다고 보고 있다. 같은 책, 142, 4.

12) *Summa Theologiae*, II-II, 142, 2.

13) 같은 책, 141, 4 ; 5.

의 관점에서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¹⁴⁾ 여러 가지 행동들과 조작들이 우리 삶의 필요를 목표로 수행되는 한에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삶의 필수적 조건들이 절제를 위한 규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어려운 문제는 물론 어떻게 우리 지금 삶의 필수적 조건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이다. 아퀴나스는 두 종류의 필수를 구별한다.¹⁵⁾ 첫째 것은 “그것 없이는 사물이 도대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식은 동물에게 필수적이다. 두번째 것은 “그것 없이는 사물에 적절할 수 없는 것”이다. ‘적절하게(convenienter)’의 의미는 해석하기 어렵고, 아퀴나스는 오직 일반적 방향만 제공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나 혹은 그에 딸린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것 없이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없을 때, 그 사물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된다. 이렇게 고려된 ‘필수’는 불변의 양이 아닌데, 그것은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필요한 것을 넘어서지는 않으면서 자신의 재산에 훨씬 많은 것을 더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도 그는 자신의 고유한 지위를 유지하면서 삶의 품위를 위해 충분하게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⁶⁾

또한 아퀴나스는 외물(外物)을 사용하는 데 행사되는 절제와 적도와 연관시켜서 ‘검약(parcitas)’ · ‘자족함(per-se-sufficientia)’ · ‘단순성(simplicitas)’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사상들을 정교하게 다듬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방금 언급한 어려움이 식사나 음주 및 성적 접촉과 같은 경우에서 필수적인 것의 쾌락에 대한 궁극적인 우선성에 해가 되지는 않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촉각의 욕망과 쾌락과 관련해서 첫번째로 추구되어야 할 것은 삶의 필수적인 것들의 충족이지 우리 욕망과 쾌락의 최대한의 만족은 아니다. 아퀴나스는 “자연은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동작

14) 같은 책, 141, 6.

15) 같은 책, 141, 6, ad 2.

16) 같은 책, 142, 1.

들에 쾌락을 도입했다. 따라서 자연의 질서는 그러한 쾌락들이 개인으로서의 인간이건 종으로서의 인간이건 생명의 보존과 관련하여 인간의 잘됨에 필수적인 것인 한 인간이 이 쾌락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⁷⁾ 고 지적하고 있다.

나는 절제있는 사람은 유쾌한 것들의 사용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첨가하고 싶다. 사실 자연의 보존과 삶의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것을 거절할 정도까지 쾌락을 거부하는 사람은 보다 고차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죄를 짓는 것이다. 아퀴나스가 마시지 않는 죄에 대해서까지 언급한 것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만약 한 사람이 본성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로까지 포도주를 의식적으로 삼가한다면, 그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¹⁸⁾ 절제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자연적 질서와 선차성을 준수하는 것이다：촉각과 관련하여 생명에 필수적인 것의 충족은 언제나 제일의 추구 대상이며, 쾌락과 향유는 두번째이다. 이 선차성은 우리가 올바른 질서를 세우려 할 때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데, 그것은 올바른 이성에 의해 구술된 질서요 선차성이기 때문이다.

이 선차성은 인간이 그의 자연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찾고 있는 우리의 일차적 관심사가 되어야만 한다. 인간은 그가 관계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자연 자원의 사용에서도 합리적이고 절제되어야만 한다. 절제의 덕은 정신의 규율 부족¹⁹⁾인 교만(superbia)의 악과 대비되며, 그러한 교만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무질서와 파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²⁰⁾ 그렇다면 절제의 덕은 정신적 아름다움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선차성이라는 원칙과 삶에 필수적인 것이 쾌락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건설될 새로운 사회 질서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질 수 있다. (옮김 : 강상진)

17) 같은 책, 142, 1.

18) 같은 책, 150, 1, ad 1.

19) 같은 책, 161, 4. 아퀴나스는 겸손을 절제의 한 부분으로 친다：“겸손이 정신의 규율(moderatio spiritus)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한.” 참조 : 같은 책, 160, 2.

20) 최초의 인간의 죄가 교만이었다는 흥미있는 신학적 뒷받침도 있다. 참조 : 같은 책, 163, 1.